

국어과 선택 과목 ‘화법’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논의*

노은희**

〈차 례〉

- I. 들어가는 말
- II. 화법 교육의 빛과 그림자
- III. 화법 과목 개선을 위한 토대
- IV. 화법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 방향
- V. 나오는 말

I. 들어가는 말

1997년 고시된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수정 보완되어 2007년 2월 말에 새롭게 고시될 예정이다. 새로운 교육과정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국가·사회의 요구를 탄력적으로 수용하되 현행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시 개정의 성격을 띤다.

‘국어’ 교과와 경우 고등학교 2, 3학년 단계에서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¹⁾ 현행 7차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일반 선택 과목으로

* 이 논문은 2006년 12월 상명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주최 전국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논문 집필과 투고는 교육과정 고시 이전에 이루어졌으나 논문 발간이 고시 이후에 이루어졌다. 또한 연구자가 화법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한 몫을 담당하면서 연구 내용이 새롭게 고시된 ‘화법’ 교육과정과 그 방향성을 어느 정도 같이 하고 있음도 미리 밝혀 두는 바이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어 생활’ 1개 과목, 심화 선택 과목으로 ‘화법’, ‘독서’, ‘작문’, ‘생활 문법’, ‘문학’의 5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을 폐지하고 심화 선택 과목만으로 선택 과목을 편성하는 방침을 정하였다.²⁾ 이에 따라 ‘국어 생활’을 통합·폐지하고 ‘매체 언어’ 과목을 신설하여,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매체 언어’의 6과목을 국어과 선택 과목으로 지정하였다.³⁾

이 연구는 새롭게 고시될 국어과 교육과정 가운데 선택 과목 ‘화법’의 교육과정 개발 방향을 가늠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화법 교육에 대한 이론을 개진하기보다는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점검할 수 있는 사항들을 짚어가며 화법 교육의 방향을 논의하려 한다. 먼저 화법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화법 교육의 현황과 화법 교육에 대한 요청을 살피고, 화법 과목의 개선을 위한 각계의 제언과 요구를 점검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화법 과목이 지향해야 하는 목표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주요 내용 범주 등을 설정해 보고자 한다.

II. 화법 교육의 빛과 그림자

1. 화법 교육의 현황—그림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4년에 280명의 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

-
- 1) 고등학교 국어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학생이 자신의 능력, 진로,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목을 선택하고 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 2) 이는 일반 선택 과목이 교육과정 운영상 설정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는 견해를 수용한 결과이다.
 - 3) 이러한 결정은 사회와 학습 환경의 변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의 연계, 국어 교과의 선택 경쟁력 제고 등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7차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매체 언어’ 과목이 신설된 것은 국어 교육의 외연을 본격적으로 확장했다는 면에서 국어 교육의 지평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한다.

한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화법 교육의 실태를 둘러보면,⁴⁾ 화법 과목의 운영 현황은 한마디로 어두운 그림자만을 드리우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선택 과목은 그야말로 선택률이 그 과목의 경쟁력을 말하는 것인데, 화법 과목은 참담하게도 조사 대상 학교 중에서 5% 남짓한 학교에서만 선택·이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현장에서 선택 과목의 이수 단위는 각 과목들에 대한 교사, 학생의 관심과 이해관계를 예민하게 보여준다. 다른 심화 선택 과목인 ‘문학’, ‘독서’, ‘작문’ 등이 2단위에서 10단위까지 걸쳐 운영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8단위로 운영하는 학교가 가장 많은 데 비해, 화법은 4단위로 운영하는 학교가 일반적이다. 다음 표는 화법 과목의 운영 현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화법 과목을 선택한 학교 수가 매우 적고, 특히 예·체능과정과 직업과정은 한 학교도 선택하지 않았음을 알릴 수 있다.

〈표 1〉 화법 과목의 이수 단위 현황

(응답 수) %

이수단위 \ 구분	인문·사회과정		자연·이공과정		예·체능과정		직업과정	
	2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
2	0	(1) 20.0	0	0	0	0	0	0
4	(3) 100.0	(3) 60.0	0	(1) 50.0	0	0	0	0
6	0	(1) 20.0	0	(1) 50.0	0	0	0	0
계	(3) 100.0	(5) 100.0	0	(2) 100.0	0	0	0	0

계속하여 다음 표는 화법 과목의 이수율이 저조한 까닭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한 것이다. 이 중에서 단연 ‘대학 입학시험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적어서’라는 응답이 두드러진다.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한 ‘화법의 낮은 상대적 가치’도 사실 대학 입학시험이라는 문제로 귀착될 수 있다. 또 나머지 이유들도 함께 종합해 보면, 결국은 입시 제도를 포함한 교육

4)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2004년에 전국의 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280명을 대상으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및 개선에 대한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다(이인제 외, 2004 : 36~44 참조, 216~224 부록 표 참조).

체제의 전체적 지형 안에서 화법 과목은 학생과 교사로부터 외면당하는 과목으로 전락하고 말았음을 알 수 있다.

〈표 2〉 화법 과목 이수율 저조 이유

(복수 응답)

순위	이유	응답 수	%
1	대학 입학시험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적어서	(147)	61.0
2	타 과목에 비해 학습 내용으로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57)	23.7
3	학교 사정상 5개 과목을 모두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55)	22.8
4	교과목의 목표와 내용에 맞게 잘 가르칠 교사가 없어서	(28)	11.6
5	선택 과목 수가 많아 구조적으로 선택이 불가능해서	(28)	11.6
6	나머지 세 과목의 이수 단위 수가 너무 많아서	(12)	5.0
합 계		(241)	135.7

마찬가지로, 선택 과목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판단을 볼 때도, 화법 과목은 고전을 면치 못한다. 선택 과목을 서열로 매긴다고 할 때, 교사들은 화법 과목을 6과목 중 5, 6위 정도로 낮게 인식하고 있다. 다음 표를 살펴보면, 화법을 5순위로 평가한 비율이 35.9%, 6순위로 평가한 비율이 32.1%나 되고, 이러한 비율은 6과목 중에서 상대적 중요도가 최하 위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표 3〉 선택 과목으로서의 중요도 우선순위

(응답 수) %

과목 \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합 계
국어생활	(55) 23.2	(31) 13.1	(23) 9.7	(46) 19.4	(30) 12.7	(52) 21.9	(237) 100.0
화 법	(2) .9	(14) 6.0	(18) 7.7	(41) 17.5	(84) 35.9	(75) 32.1	(234) 100.0
독 서	(22) 9.2	(91) 38.2	(63) 26.5	(32) 13.4	(20) 8.4	(10) 4.2	(238) 100.0
작 문	(6) 2.5	(48) 19.8	(88) 36.4	(60) 24.8	(31) 12.8	(9) 3.7	(242) 100.0
문 법	(5) 2.1	(12) 5.0	(34) 14.3	(51) 21.4	(62) 26.1	(74) 31.1	(238) 100.0
문 학	(157) 64.1	(53) 21.6	(22) 9.0	(8) 3.3	(1) .4	(4) 1.6	(245) 100.0

요컨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볼 때 화법 과목은 대

학 입학시험과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많은 학교에서 선택되지 못하고 있고, 선택되었다 하더라도 충분한 이수 단위를 확보하여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화법이 선택 과목으로서 중요도가 최하위라는 교사들의 인식 속에서, 결국 화법 과목의 축소나 폐지 혹은 다른 과목과의 통합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견해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화법 과목에 대한 낮은 평가치와 빈약한 운영 현황은 화법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혁신적인 변모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2. 화법 교육에 대한 요청—빛

앞에서 살핀 것처럼 선택 과목으로서 화법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소수 학교만이 선택하고, 또 선택되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이중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5년에 교육 관련자들(학생, 학부모, 사회 인사 등)을 대상으로 국어 교육에 대한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결과를 살펴보면 화법 교육에 대한 희망적인 요청을 읽을 수 있다.⁵⁾

학교 국어 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한 결과, 학생·학부모·사회 인사 등 모두 화법 관련 내용을 국어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학생들은 1순위로 ‘발표하거나 토의·토론하는 것’이 국어 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유사하게 학부모도 국어 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내용으로 화법 관련 내용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다음 표는 학부모들의

5)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2005년에 국어 교육 전반에 대해 설문 조사와 델파이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학생·학부모·전문가(교수,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국어 교육의 개선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델파이 조사는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 분야의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국어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이인제 외, 2005 : 16~69 참조).

대답을 우선순위에 따른 선호도로 표시한 것이다.

〈표 4〉 국어 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내용 (복수 응답)

순 위	내 용	빈도 수	비율(%)
1	토의·토론하기	1,051	22.3
2	정확한 문장 구성하기	588	12.5
3	발표하기(매체 활용 포함)	572	12.1
4	표준어·표준발음 알기	447	9.5
5	설득하는 말하기	319	6.8
6	실용적인 글 읽기	302	6.4
7	낱말의 쓰임 알기	271	5.8
8	시, 소설, 수필, 희곡 읽기	245	5.2
9	면접에 응답하기	190	4.0
10	보고서 쓰기	124	2.6
	기타		
전 체		4,710	100.0

여기서 화법과 관련한 내용으로, ‘토의·토론하기’, ‘발표하기’, ‘표준어·표준발음 알기’, ‘설득하는 말하기’, ‘면접에 응답하기’ 등을 꼽을 수 있다. 상위 10가지 중 화법에 관련한 내용이 5항목이나 되며, 5항목 중 4항목은 상위 순위 안에 모두 들어 있다. 이를 비율로 보면 전체 중 44.7%에 달하는 것으로, 국어 교육에서 화법 교육에 대한 요청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사회 인사들의 요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 등 소속된 분야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회 인사가 ‘표현 능력’ 향상이 국어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전달하고, 타인의 말을 충실하게 청취하며, 생산적인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선택 과목 중 화법이 중요하게 담당해야 할 몫인 것이다.

이와 같이 학생, 학부모, 사회 인사가 모두 한 목소리로 국어교육에서

화법 교육이 중요하고 또 필요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화법 과목의 앞길에 희망의 빛을 던져 준다. 그것은 선택 과목으로서 화법이 존재해야 한다는 당위를 이러한 요청으로부터 얻어내고, 나아가 화법 과목이 좀 더 강화될 필요도 있다는 명분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는 화법 과목이 다양한 개선책을 통해 실질적으로 운용되어야 존재 가치가 있다는 전제도 깔려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화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한마디로, 국어 교육에서 화법 교육에 대한 열망과 요구는 화법 교육의 현황이 어두운 만큼 강했다. 이는 극과 극처럼 보이나, 결국 화법 교육의 부실한 운영이 곧 이에 대한 요청을 강하게 하고 있음도 추측해 볼 수 있다.

Ⅲ. 화법 과목 개선을 위한 토대

1. 화법 과목에 대한 학자들의 제언

화법 교육을 둘러싼 학문적·이론적 연구 동향은 화법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사실 선택 과목인 화법 자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많지 않지만,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인 ‘듣기’, ‘말하기’ 영역에 관한 연구가 결국 화법 과목을 연장선상에서 고려하고 있는 만큼, 이를 포괄하여 화법 교육에 대한 학자들의 발전적 논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화법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목표 측면과 이를 통해 다루어야 할 내용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화법의 성격과 목표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창덕(2005)은 7차 교육과정의 화법 성격 규정이 ‘입시를 앞둔 고 2, 3학년 학생

들에게 얼마나 경쟁력이 있으며 호소력이 있는 선택 교과목이 될 것인가 하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화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듣기·말하기 교육과는 다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화법 교육의 목표와 관련하여 '상생의 화법 실현을 위한 목표 개발',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살리는 화법 태도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민병곤(2006)에서도 타 기능(읽기와 쓰기)과 차별화할 것을 주장하면서 화법 교육의 관점을 형식적, 기능적, 전통문화적, 비판적, 개인적 성장 관점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전인적 관점에서 통합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여기서 이들 연구들이 지적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바로 화법 과목의 목표가 타 기능(읽기와 쓰기) 영역은 물론 듣기·말하기 영역과도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어교육학자들은 이를 위한 해법으로 화법에 관여하는 다층적인 측면을 통합하여 화법 교유의 특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성격과 목표를 주문하고 있다.

또한 화법의 내용에 관해 검토를 하고 이를 토대로 유용한 시사점을 주는 연구들도 있다. 임철성(2005)은 화법 교육과정에서 듣기 부분이 소홀히 되었음을 언급하고, 듣기·말하기 교육 내용이 내용 충위와 관계 충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창덕(2005)은 고등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심화 선택 과목의 특성을 살리고 과목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면접, 토론, 프레젠테이션, 직장 대화의 기술, 화술 문제의 치료 등 인기 있는 화법 내용을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학습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도영(2006b)은 학습자의 언어 사용 경험을 통합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발화/담화/텍스트를 중심으로 내용을 재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이인섭(1998), 이창덕(2005) 등은 화법 활동 점검(이른바 '메타 화법')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연구들이 제안하는 바를 추출해 보면, 화법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면서 고등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화법 내용을 선정하고, 학습자가 이를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재구성하여 제시해야 한다는 요청을 읽을 수 있다.

2. 화법 과목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

2006년에 전국의 32개 고등학교 국어 교사들을 상대로 국어과 선택 과목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에 대해 설문 조사 및 심층 면담을 실시한 결과,⁶⁾ 그들이 화법 과목에 대해 요구하는 바를 세 가지 사항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화법 과목만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 이는 화법이 다른 선택 과목으로부터 독자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은 물론이고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인 듣기, 말하기 영역과 차별성을 지녀야 함을 말한다. 다음의 지적도 이에 대한 교사의 비판적 시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지금까지 화법 과목은 심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국어의 말하기, 듣기 영역의 내용과 구별되는 요소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1학년에서 10학년까지 펼쳐서 학습해 왔던 화법론의 내용을 한데 모아서 요약 정리를 해둔 화법 교육과정은 교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이는 실제 11~12학년에서 이 과목을 통해 학습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실제로 알려주는 바가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사들의 불만은 2004년에 실시한 교사 대상의 설문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교사들이 10학년 ‘국어’와 11, 12학년 선택 과목 간의 연계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상호 연계성이 부적절한 이유에 대해서는 내용 중복으로 인한 차별성 부족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한 위계성 부족을 대표적으로 들고 있다. 특히 ‘화법’ 과목의 경우 위계성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분석하고 있다(이인재 외, 2004 : 39~40).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 ‘국어’와 차별화되지 않은 내용을 제시하면 화법 과목에 대한 존재 논란은 여전할 수

6) 전국 32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국어 교사들에게 선택 과목에 관한 질문지를 나누어 주고, 그것에 대해 국어 교사들이 모여 논의를 하게 한 후 대표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하게 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는 국어 교사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고, 그것을 토대로 일부 대표 국어 교사들과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밖에 없다. 그야말로 선택 과목이라면 교사들에게는 교수의 필요성과 학생들에게는 학습의 매력도가 유지되어야 ‘선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현실에 대응하는 화법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 다음 예에서 교사들은 화법 교육이 현실을 담아내야 함을 역설하고 이를 위한 해법도 제시하고 있다.

“화법 과목은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들의 일상 생활과 미래의 전문적 활동에 필요한 화법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론보다 실제 담화, 상황과 장면, 발표 내용이 교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공식석상에서만 쓰는 단순한 화술적인 교과에 그치지 않고 일상의 삶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보면, 교사들은 화법 과목에 대해 현실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마련과 그에 따른 교재의 실제적 구성을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밝힌 2005년 설문 조사에서 학생, 학부모, 사회 인사들도 공통적으로 상급 학교 진학과 사회생활 적응에 필요한 실제적인 화법 교육을 주문한 바 있다.

셋째, 화법 과목이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특히 교사들은 화법의 내용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듣기’ 영역과 연관성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화법 과목의 선택·이수율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로 대학 입학시험과의 관련성 부족이 거론되고 있다. 시험 평가 제도가 실제 고등학교 수업 현장의 모습을 좌우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러한 이유를 그냥 지나치기는 어렵다. 특히 고등학교 교사의 입장에서 진학과 무관한 내용을 학생에게 강조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대학 입학과의 관련성을 요구하는 이러한 목소리는 현장에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도 이같은 교사들의 실질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화법 교육과정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대학 입학을 결정하는 시험과 평가 제도와 연관성을 놓치지 않고 있어야 한다. 사실, 가르친 것을 평가해야 한다는 단순한 교육적 취지에서도 그러하다. 아울러 상급학교 진학이나 사회생활 적응에 필요한

구술 면접에 대해서도 화법 과목이 충분히 대응한다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더라도 교사와 학생이 화법 과목을 소홀하게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화법 교육과정이 교사와 학생에게 상급학교 진학과 사회생활 적응에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된다면 화법 과목이 선택받지 못하는 설움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현장 교사들은 상급학교 진학과 사회생활 적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듣기, 말하기와는 차별화되는 화법 과목만의 특성을 살려 교육과정을 개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앞에서 살핀 국어교육학자들의 제언과 다르지 않다.

IV. 화법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 방향

화법 과목의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학문적 연구 성과와 시대적·사회적 요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앞에서 살핀 화법 연구의 이론적 동향과 화법을 포함한 국어 교육에 대한 요구 조사 등을 바탕으로, 화법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잡아 볼 수 있다.

첫째, 화법 교육과정은 대인 관계와 사회 문화적 차원까지 통합하여 화법 고유의 특성을 제대로 구현해야 한다. 둘째, 화법 교육과정은 선택 교과목으로서 경쟁력 있게 고등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방향성은 화법 교육과정이 이론적으로는 학계의 최신 흐름을 수용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현실적 실용성을 살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함을 뜻한다. 그런데 이 두 마리 토끼는 다른 방향으로 달아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에 어쩌면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것은 화법에서 대인 관계와 사회 문화적 차원을 강조하는 이론적 경향이 곧 화법의 현실성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화법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에 부합하기 위해 화법 과목의 목표와 내용을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⁷⁾

1. 화법 과목의 목표 설정 방향

화법 과목의 ‘목표’는 화법 교육이 지향하는 거시적인 이념과 구체적인 교육 내용 간을 매개하면서, 사회 변화에 따른 국어 사용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야 한다. 더불어 인간 음성 언어 소통의 궁극적인 목적과 바람직한 지향점을 살펴 화법 교유의 가치관을 그 안에 담아내야 한다. 또한 화법이 단순히 생각과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화자와 청자가 의미를 소통하여 협력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상호 교섭적인 행위임을 부각한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화법 능력이 학교와 사회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의사소통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인 관계를 개선하도록 돕는 등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편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 지점이 바로 화법이 선택 과목으로서 갖는 경쟁력이고, 국어 교육 수혜자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화법 과목의 목표를 설정할 때는 화법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에 따라 화법이 갖는 다층적인 차원을 포괄하여 수용하면서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는 차별화된 고유 목표를 독자적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따라서 화법 과목에서 목표는 일상생활은 물론 전문 분야의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담화 유형을 익힘으로써 대인 관계와 사회·문화적 맥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화법 능력을 기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말 문화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창조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7) 본고는 화법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을 논의함에 있어서 목표와 내용을 중심으로 그 방향성을 논하였고, 교수학습 방법이나 평가에 대한 부분까지는 다루지 못하였다.

2. 화법 과목의 내용 설정 방향

화법 과목의 ‘내용’은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과 목표 설정에 따라 사회의 시대적 변화와 학생들의 실질적 요구를 받아들여 현재의 일상생활과 미래의 전문적 활동에 필요한 화법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는 화법 과목이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듣기’, ‘말하기’ 영역을 연계하여 심화·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미래에 상급 학교로 진학하거나 혹은 사회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화법 능력을 안내하는 데 그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매체 환경의 변화나 학생들의 의사소통 양식의 변화, 면접과 토론 능력의 실질적 요청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화법의 내용을 설정할 때는 그간 상대적으로 말하기 내용에 비해 소홀했던 듣기 내용을 균형 있게 보완하고, 아울러 듣기와 말하기의 상호 교섭적 측면을 살려 통합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때 듣기, 말하기 영역과 관련한 음성 언어 교육을 종합하는 방식은 지양한다. 학습해야 할 중심 내용이 없이 모든 내용을 한번씩 훑어나가는 식이라면, 학생들은 깊이 없는 많은 양을 접하게 될 뿐이다. 특히 화법 내용을 실제와 연계하여 가르치려면 수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따라서 화법 과목의 경우 내용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기보다는 중심 내용을 선별하고 집중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전이력이 높은 상위 단계의 화법 능력과 활동 경험을 선별하여 제시하고 이를 현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집중 안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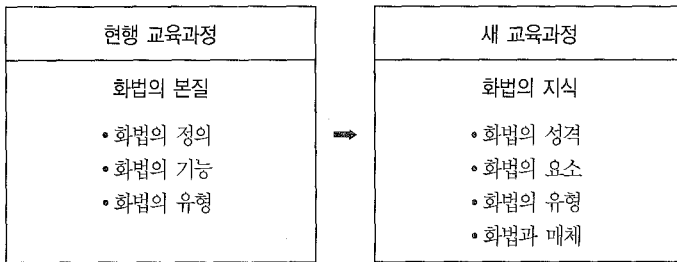
화법의 내용 요소를 선별하여 배치할 경우에도, 개인적·인지적 차원에서 화법의 과정을 분절화하여 내용을 제시하는 데에서 벗어나,⁸⁾ 화법 활동의 총체성을 고려하여 언어 사용 양상이 통합적으로 드러나는 담화

8) 그간 듣기, 말하기를 포함한 화법 분야에서 음성 언어 소통의 본질적 특성을 살리지 못한 채, 쓰거나 작문 교육과정을 따라 내용을 과정적 절차로 세분하여 다루는 우를 범하기도 하였다.

유형을 중심으로 그 속에서 관련되어 발생하는 수용과 생산의 양상, 사회적 상호 작용 양상을 재구성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화법 과목의 가능한 내용 범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⁹⁾

1) 화법에 관한 지식



현행 7차 교육과정에서는 ‘화법의 본질’ 범주 아래, 화법의 정의, 화법의 기능, 화법의 유형을 내용 요소로 삼고 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범주를 ‘화법의 지식’으로 바꾸고 이에 맞는 새로운 내용 요소를 설정해 볼 수 있다. 화법의 지식 범주는 화법을 단순히 이론적으로 점검하는 차원보다는 음성 언어 소통에 관한 체계적 이해를 토대로 담화 상황을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화법의 지식은 그저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실제적 화법 능력의 수행에 유용한 기본적 원리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화법의 특징적인 성격, 화법을 구성하는 요소, 화법의 다양한 제 유형, 화법과 관련한 매체 등의 내용이 학습해야 할 ‘지식’ 내용 요소로 제시될 수 있다.

9) 새로운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범주를 ‘본질’ 대신에 ‘지식’으로, ‘원리’ 대신에 ‘기능’으로 바꾸어 설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도 이에 준하여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화법 연구 분야에서도 이미 전은주(2001), 조재운(2005) 등이 내용 체계와 관련한 용어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데, 대체로 ‘본질’ 대신에 ‘지식’이, ‘원리’ 대신에 ‘기능과 전략’이, ‘실제’ 대신에 ‘유형’이 적절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화법의 성격’에서는 화법이 갖는 구두 언어성, 상호 교섭성, 대인 관계성, 사회·문화성 등을 부각하여 음성 언어 소통의 실제적 수행에서 드러나는 화법의 다층적 양상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 요소로 제시한다. ‘화법의 요소’에서는 음성 언어 소통 과정에 관여하는 화자, 청자, 전언(메시지), 상황 맥락 등의 요소 등을 소개하고 의사소통상의 기능과 그들간의 상호 영향 관계를 살필 수 있다. ‘화법의 유형’에서는 의사소통 목적, 상황, 참여자 구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 화법의 여러 유형을 소개하고, 이들 중에서 학습자에게 유용한 경험이 될 수 있는 화법 유형을 선별하여 제시한다. ‘화법과 매체’에서는 매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현대의 언어 생활에서 음성 언어 소통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체와 그 종류를 소개하고 의사소통의 목적에 따라 각 매체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에 관한 지식적 기반을 내용 요소로 제시할 수 있다.

2) 화법에 관한 기능

현행 교육과정	새 교육과정
화법의 원리 • 화법의 언어적 배경 — 내용 선정과 조직 —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과 이해 • 화법의 사회·문화적 배경 — 사회 변인과 언어 — 언어 예절 — 정중 어법 • 화법의 전략 — 효과적인 의사소통 — 의사소통의 문제 해결 — 시청각 보조 자료 이용	화법의 기능 • 수용과 생산 — 내용 구성 — 언어적·비언어적·미언어적 표현 — 의사소통 전략 — 매체 활용 • 사회적 상호 작용 — 참여자 인식 — 대인 관계의 형성과 발전 — 주도와 협력 — 말하기 불안 해소 • 의사소통의 점검과 조정 — 수용과 생산의 점검과 조정 — 사회적 상호 작용의 점검과 조정

7차 교육과정에서는 ‘화법의 원리’ 범주 아래, 화법의 언어적 배경, 화법의 사회·문화적 배경, 화법의 전략을 내용 요소로 삼고 있다. 이는 음성 언어 소통에 관여하는 배경과 전략을 분절적으로 나누어 각 부분을 하위 내용 요소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범주를 ‘화법의 기능’으로 용어를 대치하고, 실제 담화 상황 속에서 부딪히는 의사소통의 문제와 그 전략적 해결 양상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재구성하여 내용 요소를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용 요소들이 담화 수행 능력의 총체성을 확보하면서 긴밀히 연계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담화는 언어적, 사회적, 인지적 행위가 함께 구현되는 의사소통적 사건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담화를 수행하는 행위는 언어적, 사회적, 인지적 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크게 세 가지로 언어적 전략 측면에서 ‘수용과 생산’의 양상을, 대인 관계를 고려한 전략 측면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양상을, 의사소통의 흐름을 다시 재정비하는 메타 인지적 전략 측면에서 ‘의사소통의 점검과 조정’을 나누어 설정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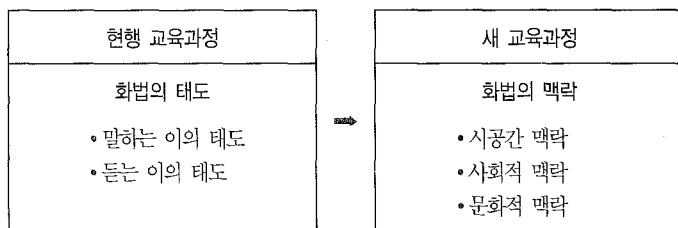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수용과 생산’ 측면에서는 듣기와 말하기 내용을 균형 있게 다루면서, 의미를 상호 교섭하는 ‘내용 구성’ 과정을 중심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언어적·반어적·비언어적 표현’, ‘의사소통 전략’, ‘매체 활용’ 측면을 함께 다룰 수 있다.

‘사회적 상호 작용’ 측면에서는 화법 과목에서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인간과 그들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인 관계성을 별도로 설정하여 다룰 부각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담화 상황에 참여하는 서로에 대한 ‘참여자 인식’을 조율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인 관계의 형성과 발전’을 이끄는 양상, 참여자 간 ‘주도와 협력’을 통한 융통성 있는 역할 교환의 양상, 대인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말하기 불안 해소’ 등을 내용 요소로 제시할 수 있다.

또한 현행 교육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의사소통 흐름의 메타적 점검이 실질적인 화법 능력에 기여한다는 최근 학계의 인식을 수용하여 ‘의사소통의 점검과 조정’ 측면을 따로 설정할 수 있다. 이를 통

해 학습자가 ‘수용과 생산’과 ‘사회적 상호 작용’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화법 내용 요소간의 연계와 통합을 모색하며 학습자의 실제 화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3) 화법에 관한 맥락



화법 교육과정에서 ‘맥락’은 새롭게 독자적인 내용 범주로 제시해 볼 만하다. 그간 중요성에 비해 소홀하게 다루어진 시공간 요소, 사회·문화적 요소들을 적극 도입하여 이에 따라 달라지는 화법의 전략적 양상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¹⁰⁾ 이러한 ‘맥락’은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 행위를 다양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조망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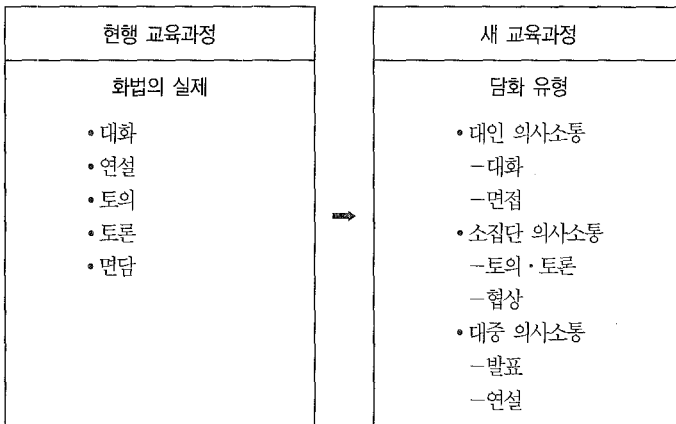
현행 7차 교육과정에서는 독자적 범주로 ‘화법의 태도’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태도에 관한 내용은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화법의 기능’ 범주에 있는 ‘사회적 상호 작용’ 양상과 ‘의사소통의 점검과 조정’ 양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다룰 수 있다. 또한 그간 태도 측면이 따로 내용을 설정하여 안내하기에 부적절하다는 학자들의 지적도 많았다. 따라서 태도는 독립 범주로 다루기보다는 각 내용 범주에서 함께 다루어야 할 요소로 보

10) ‘맥락’ 범주를 설정하는 데는, 그 기저에 ‘인지적 구성주의’에서 ‘사회적 구성주의’로 변모하는 교육계의 동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사회적 구성주의는 개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련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관습과 이에 대한 동화 과정을 중시한다. 따라서 참여자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화법 과목의 본질적 특성상 사회·문화적 맥락을 중요 범주로 살피고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이 적절하다 하겠다.

화법의 맥락은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조건적·배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하위 내용을 구성한다. 화법에 관여하는 맥락은 크게 시공간 맥락, 사회적 맥락, 문화적 맥락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시공간 맥락에서는 화법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의 요소를 고려한다. 사회적 맥락에서는 세대, 지역, 지위, 성별 등의 변수에 따른 화법의 양상을 다룰 수 있다. 문화적 맥락에서는 한국식 화법 문화의 특성, 전통 화법에 관여하는 언어 윤리와 예절, 다문화 사회·정보화 사회·멀티미디어 사회 등의 변화를 겪고 있는 현대 사회의 화법의 양상 등을 내용으로 살필 수 있다.

4) 화법의 담화 유형



7차 교육과정에서는 ‘화법의 실제’ 범주 아래 대화, 연설, 토의, 토론, 면담 등의 담화 유형이 대표적으로 제시되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화법의 다양한 유형을 고르게 배분하되 학생들의 진학과 진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형을 적극 내세울 필요가 있다. 특히 선택 과목으로서 화법은 어떠한 담화 유형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먼저 화법의 ‘담화 유형’을 고르게 선정하기 위해, 담화 참여자의 수와 관련 양상에 따라 대인 의사소통, 소집단 의사소통, 대중 의사소통으로 나누어 그 하위 유형을 배열해 볼 수 있다. 이때 대인 의사소통 유형으로 ‘대화’·‘면접’을, 소집단 의사소통 유형으로 ‘토의·토론’·‘협상’을, 대중(大衆) 의사소통 유형으로 ‘발표’·‘연설’을 대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¹¹⁾

특히 새로운 시대의 변화와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면접, 협상, 발표(프레젠테이션) 등은 새롭게 설정하여 제시해 볼 만하다. 사실 ‘면접’은 현행 7차 교육과정의 ‘면담’의 하위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면담’은 서로 만나서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는 다소 포괄적인 개념의 담화 유형인 데 비해, ‘면접’은 특정한 개인 혹은 집단과 직접 접촉하여 교섭하는 것으로 조사나 진단·시험·취재 등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담화 유형이다. 고등학생들이 진학과 진로 결정에 면접이라는 상황을 접할 수 있으므로, 면담을 면접으로 초점화하여 제시하면 이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적극적으로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협상’은 고등학생에게 아직 실제적 수행 양상을 지도하기에 부담이 되는 담화 유형이긴 하나,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거나 전문 분야에서 활동할 때 협상 능력은 실제적으로 필요하므로 화법 과목에서 기초적인 협상 능력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세계와의 교류 속에서 한국인에게 부족한 협상 능력을 보완하고 강화한다는 데도 그 설정 의미가 있다. 특히 협상은 당사자간 타협이나 합의를 이루기 위한 교섭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담화 유형으로, 상호 교섭적 측면을 명시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유형이라 할 만하다.

‘발표’ 능력은 학교의 학습 상황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생활을 할 때도 강력히 요청된다. 따라서 현행 교육과정에서 연설로 대표되는 대중 의사

11) 담화 유형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것보다 일정한 기준을 세워 그에 따라 담화 유형을 소개하는 것이 보다 체계적이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담화 유형들은 유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예컨대 면접이 개인간의 대인 의사소통 유형에 속한다고 보았으나 최근에는 집단 면접 형태도 보편적이므로 특정한 하나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 협상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탄력적인 개념 특성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형성을 살펴 담화 유형을 설계하는 것이 교육적 안내와 처치에 도움이 된다.

소통 유형에서 발표(프레젠테이션)를 따로 설정하여 내용을 독자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담화 유형의 설정에 따라 화법 과목의 특성을 분명히 살릴 수 있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듣기, 말하기 영역에서는 ‘정보 전달, 설득, 사회적 상호작용, 정서 표현’의 의사소통 목적을 중심으로 담화 유형을 고루 제시하고 이를 다양하게 경험함으로써 그에 관한 기초적 능력을 기르는 데 주안점이 있다. 그런데 선택 과목으로서 화법은 고등학생의 진학과 진로에 결정적 역할을 미칠 수 있는 담화 유형을 선별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따라서 듣기, 말하기 영역에서 경험하기 어려우나 고등학생의 실질적 요구가 있는 담화 유형을 과감하게 수용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V. 나오는 말

지금까지 새롭게 고시될 ‘화법’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을 가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이를 위해 화법 교육의 현황과 화법 교육에 대한 요청을 살피고, 화법 과목의 개선을 위한 각계의 제언과 요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화법 과목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주요 내용 범주 등을 설정해 보았다.

선택 과목으로서 화법은 그 중요도에 비해 수업 운영이 그 지향점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큰 만큼,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발할 때 이러한 현실적 간극을 메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때 화법 교육과정이 현실성을 확보하며 공고히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안이 실효성 있게 뒷받침되어야 한다. 더불어 교사의 몫도 중요하다. 화법 과목은 훌륭한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있어도 교사가 이를 가르칠 의욕과 전문성이 없으면 모래 위의 성과 같다. 지금의 국어 교사는 제대로 된 화법 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이므로

이들에 대한 화법 전문성 연수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하겠다.

덧붙여 말하자면, 사실 화법 과목의 선택률을 조금이나마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과목명을 바꾸자는 견해도 많았다. 예를 들어, ‘화법’ 대신 ‘대인 관계와 의사소통’, ‘대화와 토론’, ‘면접과 토론’ 등이 대안적 후보명으로 거론되었다. 그러나 결국 ‘화법’이란 명칭으로 다시 돌아 왔다. 그것은 실질을 바꾸지 않은 채, 포장을 바꾸어 선택되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라는 판단에서일 것이다.*

* 본 논문은 2007. 2. 16. 투고되었으며, 2007. 3. 9. 심사가 시작되어 2007. 3. 30.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강석인(1997), 고등학교 ‘화법’ 교과서 규범론, 배달말교육 17.
- 김정훈(2001), 화법 교육과정의 분석과 평가, 부산대 박사논문.
- 노은희(1999a), 대화 지도를 위한 반복표현의 기능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 노은희(1999b), 대화의 특성과 지도 방법, 텍스트언어학 7.
- 민병곤(2006), 말하기 듣기 교육 내용으로서의 ‘지식’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25.
- 박영목(2000), 의사소통의 맥락과 전략, 교육연구 논총, 홍익대 교육연구소.
- 방인태(2003), 국어과 화법 교육의 문제점과 새로운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16.
- 서 혁(2000), 말하기 교육 및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말하기 듣기 수업 방법론, 박이정.
- 윤희원(2002), 말하기 · 듣기 교수 · 학습의 지향과 과제, 국어교과교육연구 3.
- 이도영(2006a), 말하기 교육 목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국어교육학연구 25.
- 이도영(2006b), 말하기 교육 내용 체계화 방안 연구, 261회 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이문규(2002), 화법의 개념과 화법 교육의 방향, 어문학 교육 25.
- 이인섭(1998), 화법 교육의 일 방안, 국어교육 96.
- 이인제 외(2004), 국어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04-4-3)
- 이인제 외(2005), 국어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서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5-3)
- 이주섭(2001), 상황 맥락을 반영한 말하기 · 듣기 교육의 내용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 교원대 박사 논문.
- 이주행 외(2004), 화법 교육의 이해, 박이정.
- 이진경(2003), 화법의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 화법연구 6.
- 이창덕(2005), 고교 화법 교육과정의 문제와 개선 방안, 화법연구 8.
- 이창덕 외(2000), 삶과 화법, 박이정.
- 임철성(2002), 듣기 교육의 내용 체계에 대한 고찰, 국어교과교육연구 3.
- 임철성(2005), 중등학교 듣기 말하기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 고찰, 화법연구 8.
- 전은주(2001), 말하기 영역의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타당성 고찰, 화법연구 3.
- 최현섭(2004), 상생화용론 서설, 국어교육 113.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초록>

국어과 선택 과목 ‘화법’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논의

노은희

이 연구는 새롭게 고시될 ‘화법’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을 가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먼저 화법 교육의 현황과 화법 교육에 대한 요청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화법 교육에 대한 열망과 요구가 화법 교육의 현황이 어두운 만큼 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화법 과목의 개선을 위한 각계의 제언과 요구를 검토하였다. 국어교육학자들은 화법에 관여하는 다층적인 측면을 통합하여 화법 고유의 특성을 구현할 수 있는 화법 교육의 방향을 주문하고, 고등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화법 내용을 구안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찬가지로 현장 교사들도 상급학교 진학과 사회생활 적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차별화된 화법 교육과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본고는 화법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화법 교육과정은 대인 관계와 사회문화적 차원까지 통합하여 화법 고유의 특성을 제대로 구현해야 한다. 둘째, 화법 교육과정은 선택 교과목으로서 경쟁력 있게 고등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화법 과목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주요 내용 범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해 보았다.

【핵심어】 화법, 선택 중심 교육과정, 듣기, 말하기, 국어과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개정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Speech
Communication Curriculum at High School**

Noh, Eun-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of the Speech Communication education with respect to the 7th national curriculum revis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document system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Elective-centered Curriculum.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characteristics, objectives, and the relevance of the contents in Speech Communication Curriculum are renewed and the discussed.

This study consists of five sections as follows : The first chapter presents the purpose and method of this study. The second and third chapters discuss the current state of the issues and present the analysis of the needs for Speech Communication Education. In these chapters, there are the opinions of teachers, pupils, pupils' parents, professor, specialists in various fields about the issues, such as philosophy, directions, contents structure, textbooks etc. for Speech Communication Education at high school. The fourth chapter suggests the desirable direction of improvement in the Speech Communication Curriculum. The fifth chapter proposes some suggestions fro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nd a discussion about these issue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first, Speech Communication Curriculum must reflect a human relation quality and a social culture quality. Second, Speech Communication Curriculum must become the substantial help in aptitude and course of the high student.

Regarding these, this study suggests an aim and a contents of the Speech Communication Curriculum.

【Key words】 Speech Communication, Elective-centered Curriculum, listening, speaking, Korean Language Curriculum, the 7th national curriculum revision